

2018년 11월 11일 “복음의 여정(6) 성령을 따르는 삶”(롬 8:26-28)

오늘 본문은 연약한 우리를 궁극적 선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도우심)를 말씀하십니다.

[1]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8장)

2 절 -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감

3 절 -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즉 율법의 요구인 주님을 앎으로 참 삶을 살게 함.

4, 5, 6, 9, 11 절 - 그 길은 영을 따라 행함에 있다

11 절 -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 사망의 몸(7:24)]

13 절 -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참 삶으로 나아감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죽을 몸의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곤고한 이유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더 해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더’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입니다! 죄의 법 아래서 이런 마음을 일으킨 시각/방향/결과로부터 성령께서 구원하십니다. 죄의 법 아래 있는 곤고함의 성격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사람의 각각 다른 필요들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우선이어서 재능 결핍에 대해 두렵습니다. 어떤 이는 부도덕해질까 봐, 중요한 존재가 못 될까 봐, 무가치해질까 봐, 빼앗길까 봐, 통제 당할까 봐, 해 당할까 봐, 혼자 남게 될까 봐 등... 사람이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이런 필요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두려움의 영역으로부터 완벽해지고자 부단히 자신이 채우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하지(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곤고해집니다. 인간은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렘 2:13 읽음. 백성들이 행한 두가지 악:

- 1.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 2. 자기 것을 저축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그런데 밑이 터졌음)

그러면 이런 불충족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완벽주의 성향과 방식은 그릇된 길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26 절 “성령도 (1)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2)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 인간의 두 문제 지적

(1) 연약함(곤고함)은 ‘더 더’의 방식땀에 빚어진 두려움에 붙들려 자기 합리화의 방식으로 사는 상태.

(2) 기도할 바를 모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로 그분과 복된 교제와 소통이 있게 하는 행위. 따라서 거듭난 사람(하나님과 관계를 맺은)은 기도를 더 깊고 바르게 하고 싶은 영적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었기 때문에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쉽습니다. 기도의 고귀성과 능력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외된 측면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촉각이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28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성령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34 절 참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27 절 성령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희로애락과 길흉화복의 최종 자리에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3]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28 절).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내게 기쁨이 되지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 (1)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얻는 새 삶의 차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의 에고를 포기해 보고, 화도 죽여보고, 두렵지만 용기내서 자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 (2) 말씀에 끌리고 깊이 붙들리려는 소원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완벽주의자의 내면은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완벽주의는 그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지만 진리에 거스르며,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자기 정죄, 자기 책망, 자기 고문으로 빠지게 하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결국 완벽주의는 하나님, 이웃, 나와 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는 뿌리는 자기가 느끼는 필요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맺음>

사람 안에 생산되는 두려움의 해결은 완벽주의 추구가 아니라 사랑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나의 에고를 깨는 역사로 나타나며, 붙들리는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기도의 삶에 맞을 내리셔서 새 생명의 복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 1. 내 삶에서 완벽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끼치는 유익 또는 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완벽주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2.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길은 무엇입니까?(교안 참고) 성령을 따르는(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 3. 사랑의 성령의 법과 두려움의 완벽주의의 방식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완벽주의에 대한 이해는 단 시간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계속 자신을 말씀과 성령께 의지하며 성찰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완벽주의 증상의 예

A: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30 년간 발버둥 치듯 살아왔습니다. 저의 문제란 다르게 아니고 **한시도 마음이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실수할까 봐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B: 저는 대학생입니다.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내 문제를 보았습니다. **제게는 늘 그런 불안과 죄책감과 정죄감이 따라다닙니다.** 그런 느낌들은 제 사고의 흐름 속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책을 읽든, 노래연습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판단 받고 있다는 느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C: 저는 주님을 위해 좀더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나라는 사람은 실패작이어서 **내 자신과도 더불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고 여러 모로 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책 중 분노와 적개심에 대한 부분은 글자 그대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증오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면 으레 미안함과 함께 깊은 우울이 찾아옵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영적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D: 저는 사랑을 하고자 열심히 애씁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비판적이고, 판단적이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들 쪽에서 어떤 실수만 보여도 저는 화를 내며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에 빠집니다.** 우리 가족들은 사랑이 많고 잘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반복되는 하나의 유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E: 저는 열심히 노력할수록 열심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좀 지쳤다고 해서 노력을 아예 그만뒀 버리면 엄청난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굳어진 유형인 것 같습니다.